

대학 신입생 대상 학사지도교수의 자질과 보살사상

정귀연

동국대학교(경주) 파라미타칼리지 신입생학사지도부 교수

Quality of Academic Advisor for Freshmen and Bodhisattva Thought

Jeong, Kwiyeon

Dongguk University(gyeongju)

cgy-33@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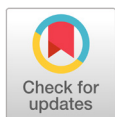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and qualities of academic advisors for freshmen and the practice of Bodhisattva as a method of fulfilling these qualities.

The academic advisor is responsible for the new students entering the university to help them prepare for college life and complete the developmental tasks of the adult introductory period. The qualities needed to fulfill the role were <Unconditional Positive Respect> <Empathy and Acceptance> <Truthfulness> <Knowledge and Competenc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Self Innovation>. These qualities gained enlightenment, but resemble the image of a fire bodhisattva who shared the pain of rebirth and stayed in temporal life to save rebirth.

Paramita for Bodhisattva to practice was a method of practice that could help the self-growth and character of the academic advisor.

Keywords: freshman academic advisor, endowment, Bodhisattva, paramita of Bodhisattva to practice



OPEN ACCESS

KJRE. 2020 February, 62(1): 47-62

DOI: <https://doi.org/10.12972/kjre.20200004>

Received: January 22, 2020

Revised: February 7, 2020

Accepted: February 19, 2020

Copyright: © 2019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머리말

연구자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불교종립대학 지방캠퍼스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사지도교수직을 맡고 있다. 학사지도교수는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성인초기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관리와 원조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교육자나 상담자나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성장을 꿈꾼다. 성장을 향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이다.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에도 삶에 보람을 느끼며 성장을 꿈꾸는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가 포함되어 있다. 교수자 역시 성인 학습자로서 학생들과 함께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꿈꾸고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추구한다.¹⁾

학사지도교수로서 성장의 최적 모델은 어떤 모습일까? Rogers(1961)는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

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들은 경험에 대한 높은 개방성을 가지고 있으며 순간을 충만하게 살고 자신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갖는다고 묘사하였다.²⁾ Maslow(1970)은 ‘자아실현한 사람’의 특성³⁾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Jung(1961)은 ‘개성화를 이룬 사람’⁴⁾으로 설명하고 있다. Jourard와 Landsman(1980)은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에 대해 인정 많은, 자기와 타인을 사랑하고 돌보고 싶어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⁵⁾ 여기에 더해 불교에서는 보살이라는 최적 모델이 있다. 보살은 자각한 존재로서 한편으로는 진리를 구하면서도 그 진리를 이웃과 공유한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들을 그 고통의 질곡에서 구원하기 위해 애쓴다.

이를 정리해 보면, 인간이 최적으로 기능한다는 말은 자기 신뢰, 자기 수용, 자기 자각, 자기 통합과 같은 자기완성과 세상과의 있는 그대로의 소통, 타인에 대한 존재자체에 대한 사랑이 핵심적인 특성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불교의 보살사상은 보살이 되기 위한 수행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어 자기성장과 자기계발을 위해 중요한 실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사지도교수의 자질과 태도를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해보고 신입생학사지도교수의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보살의 정신에 대해 성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신입생들의 특성은 어떠하며 이에 따른 학사지도교수 제도의 도입배경 및 학사지도교수의 자질과 태도 등 학사지도교수제와 학사지도교수에 대한 전반적 성찰이다. 두 번째는 보살이란 어떤 존재이며 보살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에 대한 성찰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보살정신에서 학사지도교수가 자신의 성장을 위해 배우고 느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대학 신입생과 학사지도교수

1. 대학 신입생의 특성과 학사지도교수제 도입배경

1) 대학 신입생의 특성

흔히 2000년을 기점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을 ‘Z세대’라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태어나면서 컴퓨터를 보유했던 세대로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즐기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오락을 즐기는 방식의 여가생활이 익숙한 존재들이다.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불릴 만큼 랩톱, 휴대폰, 태블릿, 데스크 탑 등등 하루에 최소한 5가지 이상의 디지털 기기를 오가며 멀티태스킹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금 대학은 이런 ‘Z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 들어올 신입생들은 이런 특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 1학년 신입생들은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시기이다. 대학생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초기로 진입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부모 및 교사에 의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에서 점차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 전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시기이다.⁶⁾ 이런 과정 속에서 대학 신입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학업에 대한 고민, 갑자기 넓어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등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수많은 고민들을 갖게 되며 최근에는 이런 고민들에 청년실업문제까지 더해지며 예전과는 다른 대학신입생들만의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대학 내일 20대연구소’가 1999학번과 2019학번 학생 각 15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학번 학생의 80.0%는 대학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학업(학점)’을 꼽았고 99학번 선배들은 ‘동기나 선배와의 인간관계’(66.7%)를 꼽았다. 19학번은 수강 신청을 할 때 ‘학점을 잘 주는 강의(40.0%)’, 강의 평가가 좋은 강의(39.3%)를 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9학번은 ‘친구와 수강할 수 있는 강의(40.7%)’, ‘강의계획서 확인 후 관심 있는 강의(39.3%)’가 높은 중요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⁷⁾

이런 Z세대 대학 신입생들은 가족과 학교, 사회 전반에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외재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외모나 사회적 인정, 학벌, 좋은 직장, 경제적 성공 등을 갖기 위해 초점화 되어 있다. 그러

므로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외재적 가치 준거에 따라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가치매김이 곧 현재의 자기 가치가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외재적 가치 준거에 비추어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압박한다. 하나의 특정한 가치는 이와 상반되는 가치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외재적 가치에 초점이 맞춰진 대학 신입생들에게 내재적 가치는 점 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⁹⁾ 있는 듯하다.

2) 학사지도의 정의

학사지도교수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삶의 목표 탐색(exploration of life goals), 직업적 목표탐색(exploration of vocational goals), 프로그램 선택(program choice), 진로 선택(course choice), 진로계획(course scheduling)을 포함⁹⁾ 한 다양한 일들을 수행한다.¹⁰⁾ 즉,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해야 하는지, 자신의 진로를 위해 어떤 전공과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등 교육적, 직업적, 개인적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학사지도(academic advising)를 담당하는 교수는 학생이 학문적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탐색하고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학생이 특별한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학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학생 스스로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학사지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학사지도교수는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적절한 학교 지원을 잘 이어주는 능력이 필요하다. 학사지도교수는 학생들을 지적 호기심(intellectual curiosity), 개인적 발전(personal development), 실용적 경험(practical experience)의 가치들을 포괄하는 ‘배움의 공동체(learning community)’로 이끌어야 한다.

3) 학사지도교수제의 도입배경

선진국에서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두지는 않았지만 1930년대 이후 학사지도를 전담하는 학사지도교수 제도를 도입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사지도교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¹¹⁾ 우리나라는 2000년 연세대학교에서 최초로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단위를 광역화하면서 국내 최초로 학부대학을 설립하면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이나 대학생활 적응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제도적인 변화를 요구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신입생의 학사지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대학 1학년 학생들은 분리(separate), 전이(transition), 통합(incorporation)의 3단계를 거쳐 대학생활에 융화 되어간다(Tinto, 1993).¹²⁾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기존의 생활방식이나 대인관계 방식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를 분리단계라고 한다. 다음단계로 신입생은 새로운 대학사회의 규칙이나 기준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준이나 방식을 전환시키는 전이의 단계를 거치고 대학 사회 속에 완전히 적응하는 통합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특히 최근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이전에 비해 학사 관련 정보 및 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학과 단위의 공지사항 형식으로 전달 받던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 속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분리단계에서의 어려움을 예고하게 되었고 이후 적응단계로의 이행 또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신입생의 분리단계에서 전이단계, 통합단계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전문적인 안내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020학년도 수능채점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수능 응시자 수를 48만 4737명으로 집계했다. 1년 만에 4만 5000명 이상 줄었다. 지난 해 8월 교육부가 공개한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 추이’에 따르면 2020학년도 대입자원은 47만 9376명으로 2018년 대입정원(49만 7218명)과 비교하면 1만 7842명의 미충원이 예상된다. 대학의 정원 미달 현상은 지역·대학·학과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 소재 대학, 이공

계 인기 학과에 대한 입시 경쟁은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 소재대학과 ‘비인기학과’를 중심으로 미충원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단 입학했다가 다시 대입을 준비하는 ‘반수’학생들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소재 대학들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다.¹³⁾ 특히 대학 진학인원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에 소재한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입학율도 중요하지만 그 입학생이 대학에 잘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대학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대학 전체 재학률에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Adeel Khali와 Jessica Williamson (2014)¹⁴⁾의 연구에서 보면, 학사지도교수를 받은 학생은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등록 가능성이 높고 졸업에 필요하지 않는 수강신청을 할 경향성이 낮으며 대학을 더 즐기기 쉽고, 졸업하기가 더 쉽다고 하였다. 이런 시대적 이유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사지도교수제가 도입되었다.

2. 학사지도교수의 역할

1) 학사지도교수의 규범적, 발달적 역할

Adeel Khali와 Jessica Williamson (2014)은 학사지도교수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학사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전공결정에 도움을 주고 전공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¹⁵⁾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필요한 대학 차원의 신입생 교육과 지원을 연구해 온 Upcraft 등(2009)은 미국 도심 공립대학인 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이하 UTEP)의 신입생프로그램(Entering Student Program:ESP)을 만들었다.¹⁶⁾ 이에 따르면 대학은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부터 모집 및 재정 지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의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입학 후에는 신입생들의 개인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단과대학이나 학과, 대학 상담센터 등에서 적절한 조언을 지원하며 학문적 요구를 위해서는 1학년 세미나 학습 공동체 등의 학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래 <그림 II-1>은 UTEP의 신입생 프로그램 모형을 활용한 대학생 전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신입생의 요구에 입학 및 모집 과정에서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우리 학교 학사지도부에서도 예비신입생 프로그램으로 ‘신입생 역량강화캠프’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업 지원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우리대학에서는 1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자기계발과 미래설계1,2’라는 교과목을 수강해야 하고 이 교과목과 연계된 면담을 한 학기 1회 이상 1:1 대면 면담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신입생들이 알아야 하는 학사제도나 학과 특성이나 대학 공부, 대학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그리고 대학생의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한 학기, 1년, 대학 4년 동안의 진로설계 로드맵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인디언 속담처럼 현재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사지도는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그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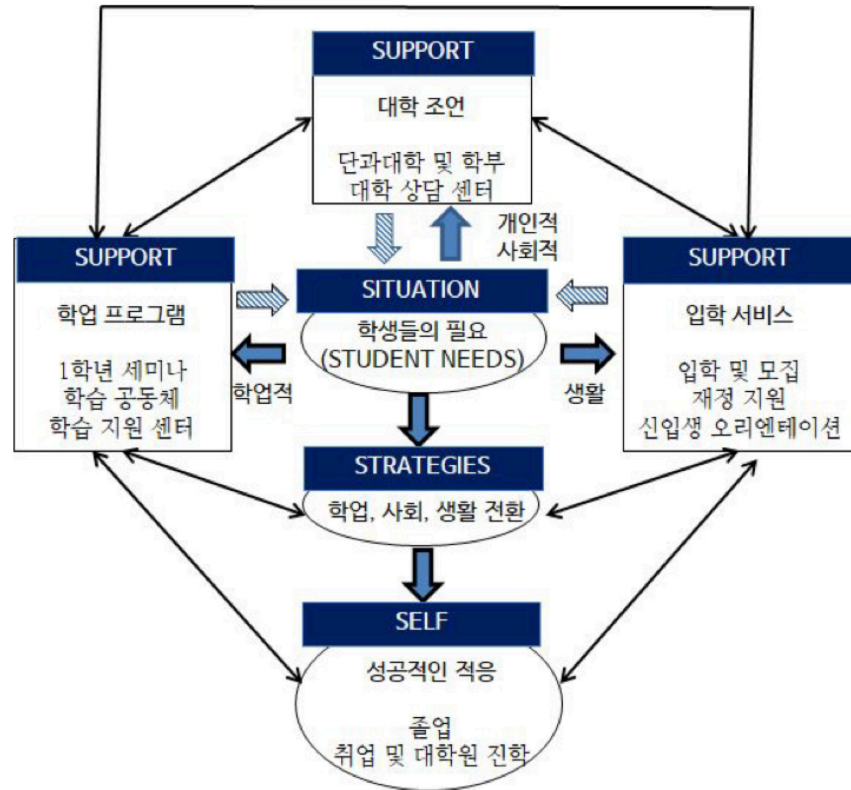
학사지도교수는 학생의 장래 직업에 대한 목표설정과 삶의 과정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학사지도는 학업 계획의 초기단계에 제공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사지도교수의 역할들에 대해 정리해보면 학사지도교수는 다음과 같이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조력한다.

첫째, 학문적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 학생에게 기회를 탐색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둘째, 학사지도교수는 학생이 특별한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학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학생 스스로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셋째, 대학에서의 학업과 인간관계가 미래 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진로탐색과 진로계획을 돕는다.

넷째, 발달적 과업을 완수하도록 도움으로써 성공적인 생애설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II-1> UTEP 신입생 프로그램 모형을 활용한 대학생 전환 과정¹⁷⁾

2) 실제 사례로 본 학사지도교수의 역할

우리 대학에서 2018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학사지도교수 면담수기 공모전에 출품된 면담수기 중 학사지도교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울이 되어주었다>

“교수님과 면담을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가는 길에, 내가 너무 맹목적으로 캠퍼스 이동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 스스로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스스로가 부끄럽고 창피하여 행동과 말들, 생각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공감과 경청으로 나를 받아주었다>

“학생들과 공감하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로 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 상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좋았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생각을 해주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서는 너무나 힘이 ..열심히 일러주시고...관심을 가져주셔서 마음이 벅찼다...”

“마음을 열고 면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는 것에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 쉼터로서의 역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다>

“내 속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조언과 위로를 들어보니 답답하고 막막했던 것들에 대해 많이 풀린 것 같아 신기했다...”

“혼자 해결할 줄 알았던 일을 누군가가 도와주고 기댈 수 있게 해 준 것에 크게 감사하고 있다...커다란 고민을 다독여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해결책을 안내해 주었다>

“새내기들이 어떤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셨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민해결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고 더불어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정보 또한 얻게 되었다...”

“정확한 정보와 길을 보여주시면서 신뢰가 가고 정보를 얻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

<불안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목표가 생겼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몰라 불안하고 심란했었는데 면담을 통해 목표를 가질 수 있고 그 목표에 맞춰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

“면담을 통해 저의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안심이 되었다...”

<대학생활의 전환점이 되었다>

“면담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실천력은 앞으로 대학생활에 활력이 되어 줄 거라 믿는다...”

“면담을 통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 하나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신입생 학사지도교수와 면담을 경험한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학사지도교수의 역할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사지도교수는 무조건적 존중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공감과 경청을 통해 누군가가 자신에게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역할, 이런 느낌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게 한다.

셋째, holding(함께 머무는) 것이다. 학생들의 고통과 고민을 함께 느끼고 나누며 견뎌내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학사지도교수가 학생들이 경험을 함께 나누며 감정을 함께 나눌 대상의 될 수도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신입생학사지도교수는 대학신입생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며 격려와 위로를 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대학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해결책은 해답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가는 원리와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다섯째, 대학신입생들은 특히 첫 1학기 초반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로 인한 긴장과 불안은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호소하는 문제이다. 학사지도교수는 학생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불확실한 상황을 해석해 줌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여섯째, 대학 신입생들은 학사지도교수를 만나 학사지도를 받으면 대학생활의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막연했던 대 학공부와 대학에서의 인간관계, 목표설정과 진로계획 등에 대해 길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대학생활에 통 제감이 생기게 된다. 신입생학사지도교수는 학생들에게 변화를 촉진하고 성장의 욕구를 자극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III.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신입생학사지도교수

1. 보살사상과 학사지도교수

1) 보살의 정의

보살(菩薩, Bodhisattva)은 깨달음(bodhi)을 구하거나 성취한 사람(sattva)을 뜻하는 말로서 산스크리트어를 음역한 보리살타(菩提薩埵)의 준말이다. 보디(菩提: Bodhi)는 붓다(佛陀: Buddha)와 같은 어원인 ‘Budh’에서 나온 것으로 ‘깨침’을 의미하는 말이고, 샛트바(薩埵: sattva)는 ‘as’에서 만들어진 ‘존재(存在)’, ‘유(有)’ 등을 나타내는 말로써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로 들어선 중생’, ‘구도자’, ‘지혜를 가진 자’ 등을 의미한다.¹⁸⁾ 이는 불교의 초기경전에 소개되는 연등불 수기(授記)에서 비롯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반드시 불타가 될 후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로 부터 깨달음에 도달하였으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현세에 머물러 있는 불타적 존재를 지칭하게 되었다.¹⁹⁾

보살사상은 대승의 주요경전인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등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설명된다. 이들 경전에서 보살은 서원을 내어 육바라밀을 행하며,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上求菩提)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교화(下化衆生)하여 오랜 세월 동안 자리(自利)·이타(利他)의 행을 닦으며 드디어는 불과를 증득하는 구도자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보살은 자각한 존재로서 보살은 한편으로는 진리를 구하면서도 그 진리를 이웃과 공유한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들을 그 고통의 질곡에서 구원하기 위해 애쓴다.

2) 학사지도교수의 자질

대학 신입생들이 요구하는 학사지도교수의 역할들과 그 역할들의 특성, 그 특성들을 위해 갖춰야 할 자질 등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 III-1>과 같다. 즉,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학사지도교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이다. 학사지도교수는 더함도 덜 함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주는 존재,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책을 안내받을 수 있는 안내자의 존재로 비춰진다. 또한 불안하고 긴장되는 대학생활 속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존재이며 학사지도면담을 통해 용기가 생기고 성장하고 싶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싶게 만드는 존재이다. 이런 역할들을 특성들로 분류하면, 거울처럼 비춰주는 행위는 무자성과 무아, 공과 같은 특성이 있다. 나를 받아주는 것에는 공감과 수용의 특성이 있다. 함께함으로 힘이 되는 것에는 위로와 격려, 공유의 특성이 있고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역량이라는 특성이 있다. 안정감을 주는 역할에는 정서적 안정감의 특성, 전화점이 되는 역할에는 성장을 촉진하고 경험에 개방적이며 도전적인 특성이 녹아있다. 학사지도교수의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특성들을 통해 학사지도교수가 갖춰야 할 자질을 정리해보면 필요한 학사지도교수의 자질을 크게 전문적 자질과 인성적 자질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인성적 자질에는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과 수용, 진실성, 전문적 자질에는 전문적 지식과 역량, 내외적 통제력, 자기혁신의 자질로 분류된다.

<표 III-1> 학사지도교수의 역할, 특성, 필요한 자질

	역할	특성	필요한 자질	
인성적	거울이 되어주는 존재	무자성, 무아, 공(空)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인성적
	나를 받아주는 존재	공감, 수용	공감과 수용	
	함께함으로 힘이 되어주는 존재	위로, 격려, 공유	진실성	
전문적	안내자의 존재	지식, 역량	전문적 지식과 역량	전문적
	안정감을 주는 존재	정서적 안정감	내외적 통제력	
	전환의 계기가 되어주는 존재	성장촉진, 개방성, 도전	자기혁신	

(1) 학사지도교수의 인성적 자질

인성적 자질이란 학사지도교수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태도나 성품과 같은 성격특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과 수용, 진실성이 포함된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학사지도교수는 무조건적인 존중과 긍정적 존중의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학사지도교수는 학생들을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자체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공감과 수용>

학사지도교수는 공감과 경청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학생들과의 세대 차나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공감적 경청자여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그들의 작은 성취에도 그들보다 더 기뻐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여야 함을 의미한다.

<진실성>

학사지도교수는 언어·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일치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마음을 열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초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학사지도교수 자신의 자각과 성장을 위해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2) 학사지도교수의 전문적 자질

전문적 자질이란 신입생학사지도라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기법을 의미한다. 여기에 속하는 자질로는 전문적 지식과 역량, 내외적 통제력, 자기혁신이 포함된다.

<전문적 지식과 역량>

학사지도교수는 선배이며 인생의 멘토로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단편적인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지식을 통합하고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내외적 통제력>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신입생들은 긴장과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도 학사지도교수의 역할 중 하나다. 때문에 학사지도교수는 스스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여야 하며 이런 정서적 안정감이 말이나 행동, 전체 분위기에서 느껴지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사지도교수의 전체적 안정감은 불확실의 시대를 사는 신입생들이 안정감을 찾고 위로받고 설 수 있는 심리적 쉼터를 제공할 수 있다.

<자기혁신>

교수자도 성인학습자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열심히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상황의 변화에 맞게 자신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태도, 생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혁신자여야 한다. 즉, 끊임없는 자기변혁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이러한 자기혁신자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속도가 빠른 현대의 신입생들의 생각과 감정 및 실제 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적응적 삶을 위한 롤모델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신입생학사지도교수는 반드시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재탄생 시키는 자기변혁자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

2. 학사지도교수의 자질과 보살사상

신입생학사지도교수의 자질들을 보살사상과 연결해서 분석해보는 것은 학사지도교수의 자질을 이해하고 이상적인 학사지도교수의 자질을 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신입생학사지도교수에게 요구되는 자질들을 보살사상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살펴본 내용이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보살사상>

상대를 심리적 투사 없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누구나 자신의 틀로 세상을 이해한다. 학사지도교수가 대학신입생들을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정각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것이다. 보살은 깨달음에 이르렀지만 중생을 돕고자 이타행의 삶을 실천하는 존재다. 그런 보살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의 틀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세계에 들어가 함께 보고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학사지도교수가 만나는 대학 신입생들은 물질주의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추구성향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 미완의 분리개별화를 원인으로 하는 과거로의 회귀성향 등의 심리적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들은 외적, 결과위주의 평가와 비교 속에 낮은 자존감과 무력감에 낙담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런 학생들을 어떠한 조건도 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귀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공감·수용의 보살사상>

분리된 두 사람이 서로 공감이 가능하게 해 주는 매개는 자비(慈悲)이다. 자(慈)란 상대에게 이익과 안락을 가져다주는 것이고 비(悲)는 상대의 불이익과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특히 비(悲)는 상대의 괴로움을 공감하여 함께 괴로워하는 마음이다.²⁰⁾ 자비가 아니면 상대의 부정적 느낌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비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공감은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다. 경청은 눈과 귀와 마음으로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을 말한다. 몸을 상대에게 기울이고 눈으로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살피며 마음으로 상대의 진짜 마음을 가늠하는 듣기 방식이다. 즉 공감과 경청은 상대의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할 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진짜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 애쓰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늘 자신이 세상에 주인공이라고 여기며 그렇지 못할 경우 실망하고 불행해 한다.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말보다 자신이 하는 말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는 경우가 많다. 상대가 말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감각이 집중되기 일쑤다.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니라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자신에게 기울였던 주의를 상대방에게 돌려 오직 그 순간 학생만 있는 듯 마음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공감을 통해 진정으로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

<진실성의 보살사상>

『유마경』에서 보살은 ‘연기법을 깨달아 無所得, 無生法忍, 無所畏를 증득하여 상호가 장엄하며 모든 바라밀을 수행하여 금강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지혜와 방편, 일체 공덕을 구축한 자이다. 그 중 반야의 지혜를 얻은 보살을 진보살(眞菩薩)이라고 한다. 진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중생과 함께하며 희노애락을 내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며 선정과 지옥을 구분하지 않고 생사 속에 있으면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매진하는 보살이다.’²¹⁾

‘비록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해도

보살은 오직 한 길만을 갈 뿐이다.

보살의 길은

매 순간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이다.²²⁾

진실성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조건없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느낌,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학사지도교수가 학생들을 대할 때는 진심을 다해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이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느낌도 포함된다. 특히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하는 것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다. 또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진실한 통찰은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학사지도교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다.

<지식과 역량의 보살사상>

보살의 마음은 항상 보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어떤 대상이든 보살은 보리의 눈으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²³⁾ 따라서 보살은 지혜로운 존재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워 그 서원에 따라 어떠한 업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깨달은 자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존재이다. 학사지도교수는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의 생활 전반에 개입하여 학문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안내하는 존재다. 한 개인의 생활 전반을 종적·횡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많은 지식과 역량이 요구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를 통합하고 재구성하고 전달하고 설득하는 다양한 역량이 요구된다. 학사지도교수의 전문적 지식과 역량의 차이가 곧 신입생의 대학생활과 대학 이후의 삶의 차이를 만들 것이다. 신입생학사지도를 담당하는 교수는 신입생들의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전문가적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외적 통제력의 보살사상>

오로지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사윤회에 들어가 중생의 병에 함께 아파하는 보살이야말로 불안과 혼란 속에 길을 잃고 헤매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불을 밝혀 길을 안내하고 그 길고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학사지도교수들이 가져야 할 자질이라 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경험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해석의 결과에 따라 감정을 느낀다.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그만의 존재 가치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틀을 내려놓고 상대의 실존적 가치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내기 위해 학사지도교수는 먼저 자신의 틀을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틀이 작용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을 제어하고 그 해석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을 제어해서 결국 말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학사지도교수를 만나는 신입생들은 안정감을 느끼며 복잡한 마음과 몸을 쉬게 될 것이다.

<자기혁신의 보살사상>

보살은 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서원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보통 사람들의 의식은 안팎으로 들어오는 온갖 대상, 즉 기억과 상상과 같은 아라야식의 저장 창고에서 나오는 내면의 대상뿐 아니라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외부의 대상에 모두 휘둘린다. 서원을 세워서 산다는 것은 진심을 다해 산다는 것이며 사소한 일상사든 위대한 일이든 깊은 내면의 근원에 근거하여 그 일을 해 나가며 사는 것이다.²⁴⁾ 자신이 하는 일에 진심을 다해 정성껏 임한다는 의미다. 학사지도교수는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진심을 다해 임해야 한다. 자신의 현 수준을 진실되게 살피고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 보완하고 완성을 향해 노력하는 존재여야 한다.

이재수·박경준(2017)은 보살은 대승불교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이상적인 실천가로 정립되었다고 했다.²⁵⁾ 깨달음을 얻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천상이나 인간세계나 모두를 이익 되게 하여 해탈하려는 원력으로 중생과 하나가 되어 고통을 나누는 실천가로서의 보살이야말로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이라²⁶⁾고 했다. 실제 학생들이 느낀 학사지도교수의 역할을 통해 추출해 낸 학사지도교수가 갖춰야 할 자질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성공적 적응과 발전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기르고 진심을 다해 그 역할에 임하는 모습이 불교에서의 이상적 인간상인 보살의 모습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

음을 알 수 있다.

3. 보살행과 학사지도교수의 자기도야

자기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남의 이익을 먼저 배려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없이 수행의 당위성과 수행도를 설하셨고 보살행의 당위성을 설하셨다.²⁷⁾ 보살은 모든 이타행을 해탈 열반에 회향시킴으로써 자비적 실천이 그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자신을 구제하는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타행이 바로 바라밀행(波羅密行)이다. 바라밀행이란 대승사상에서 보살이 추구해야 하는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반야(般若)의 여섯 가지 수양 덕목이다.²⁸⁾ 이러한 보살도의 실천수행인 바라밀행을 신입생학사지도교수로서 자기도야를 위한 수행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보시바라밀(布施波羅密)>

보시(布施)라는 말은 베푸는 것을 말한다. 보시바라밀은 소유한 모든 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뜻한다. 물질적인 재물을 베푸는 (財施), 진리를 가르치는 법시(法施), 공포를 제거하여 안심케 하는 무외시(無畏施)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보시를 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세는 아무런 조건도 바람도 없는 무보수의 행동, 즉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이다.²⁹⁾ 보시바라밀행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중생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면서도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마저 버림으로써 자신의 욕심을 끊고 집착을 떠나며 타인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보살의 실천행이다.³⁰⁾

인간은 개별 개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연기적 존재이다. 학생들의 문제를 자신과 떨어져 존재하는 별개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자신과 연결된 문제라고 여기며 언제나 무슨 일이든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돕고자하는 학사지도교수의 행위는 보살행 중 보시바라밀의 수행과 닮아있다. ‘너’와 ‘내가’ 따로 있지 않고 연기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학생들만을 위한 보시는 있을 수 없다. 학생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곧 학사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자의 성장과 발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상보시, 학생들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가르쳤다는 마음조차 갖지 않는 보시바라밀이야말로 신입생의 학사지도를 맡은 교수자가 실천해야 할 실천행이다.

<지계바라밀(持戒波羅密)>

지계바라밀은 계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불교의 계율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률과 사회의 도덕을 지키는 것까지 포함한다.³¹⁾ 보살이 지계를 완성하는 것은 계를 지켜 악한 일을 범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여 가지가지 선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³²⁾

학사지도교수는 윤리적 의식과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이 잘 인식할 수 없는 신념체계를 살펴 자신의 신념체계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학생들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마음 작용이 말과 행동을 이끄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한다. 자신의 貪嗔癡(三毒)에 의해 身口意(三業)을 빌어서 악한 업을 짓지는 않는지 항상 살피고 걱정해야 한다.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악업을 짓지 않겠다는 원을 세워 행동과 말과 마음을 청정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지계바라밀이다. 학사지도교수는 대학이란 새로운 세계에 첫발을 디딘 신입생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반드시 이러한 원칙을 지켜 학생들의 건강한 적응과 성장을 원조해야 한다.

<인욕바라밀(忍辱波羅密)>

인욕바라밀은 고난을 감당하여 참는 것이다. 여기는 물질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난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타인으로부터 받는 박해와 고통을 잘 참고 나아가 그것을 받아들여 원한과 노여움을 없애고 모든 법을 밝게 관찰하여 마음이 안주하는 것을 말한다.³³⁾

학사지도교수라고 늘 긍정적이고 적응을 위해 준비된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요즘 대학생들은 외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학교교육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수동적이고 비자발적인 학습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다. 왜 대학을 다녀야 하는지, 왜 학사지도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 왜 미래를 위해 자기를 계발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런 신입생들을 향해 대학을 다녀야 하는 이유와 자기계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 이유로 학사지도 교과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치지 않고 설득해서 학사지도의 목적을 이뤄내는 것이 신입생학사지도교수의 역할이다. 신입생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걱정하고 아파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입생들의 상황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보듬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 학사지도교수는 깨닫지 못한 학생들 곁에서 그런 학생이 깨닫는 순간까지 길고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존재이다.

<정진바라밀(精進波羅密)>

정진바라밀은 모든 업을 두루 지으며 항상 닦아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짓는 일을 퇴진하지 아니하며 용맹한 세력을 제어할 이 없고 모든 공덕에 취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면서도 능히 온갖 지혜의 문을 만족케 하는 것이다. 보살은 게으름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으로 한 번 세운 서원은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항상 부지런히 닦아 꾸준히 나아가되 몸과 입으로써 부지런히 선한 일을 배우고 실행하여 기어이 성취하도록 노력하며, 뜻을 항상 진리에 머무르게 하여 모든 악한 생각을 없애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여러 사람이 이롭고 나에게도 좋은 선업의 진리를 떠나지 않게 정진하는 것이다.³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교사는 교육에 있어서 알파요 오메가’³⁵⁾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에서 교육자의 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사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기르는 일에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 바꾸는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지식과 역량은 다룰 수밖에 없다. 그때그때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구비하려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기변혁과 성장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삶이 다할 때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성장은 학생들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학사지도교수의 실천이 바로 ‘학사지도교수의 정진바라밀’이다.

<선정바라밀(禪定波羅密)>

선정바라밀은 마음이 산란해 지는 것을 멈추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진리를 바르게 사유하는 수행이다. 보살이 반야의 지혜를 얻고 성불하기 위해서 마음을 닦으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망념과 사념과 허영심과 분별심을 버리고 한 생각을 쉬는 것을 의미한다.³⁶⁾

학사지도교수는 청정한 마음으로 편안함에 머무르며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마음을 통찰할 수 있는 깊은 침잠의 시간을 통해 시시때때로 변하는 마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며 본래의 자성이 모두 공함을 깨달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삶의 현상이나 교육의 현상이나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없는 순간이 없다. 그런 혼탁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 마음을 관하고 꼭 붙잡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학사지도교수의 모습에서 빠른 변화 속에 불안과 긴장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에게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그런 흔들림 없는 평정심으로 살펴봐야 학생들의 진면목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호수가 잔잔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대상을 제대로 비춰줄 수 있는 것이다.

<반야바라밀(般若波羅密)>

‘반야’는 ‘지혜’를 뜻하는 범어를 한자로 음역하여 사용하는 단어다. ‘반야바라밀’이란 제법을 바르게 관찰하고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제법에는 자성이 없어 여여(如如)함을 아는 것이다. 부처님께 법을 듣고 그것을 받들어 지녀 선지식을 공경하고 친근히 모시되 게으르지 않으며 항상 즐겨 법을 듣되 싫증내는 마음을 내지 않고 들은 바 모든 법문을 깊게 마음에 새겨 진실한 선정에 들어 일체의 뒤바뀐 사건(邪見)을 버리고 모든 법은 제 성품이 없음을 분별해서 알며 부처님의 깊은 지혜의 문을 닦아 익혀 모든 지혜의 힘을 두루 갖추고 넓은 문의 지혜를 타고 모든 지혜의 문에 들어가나니 이것을 청정한 지혜바라밀이라 한다.³⁷⁾ 일체가 모두 연기에 의한 것임을 살펴 자성(自性)이 모두 공(空)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 깨달음이 ‘지혜’이고 깨달음을 목표로 삼아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혜바라밀이다.

학사지도교수는 학생들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학생들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임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아프고 힘들 때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고통의 원인을 찾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색하여 함께 고통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고 기쁨이 있을 때는 기쁨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고 그 기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예측하여 기쁨과 슬픔이 다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관하여 그 감정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깨달음의 지혜를 학생들도 성취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발생하는 현상들을 면밀히 살펴 발생하는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왜 발생하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정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학사지도교수의 지혜를 얻고자 실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사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학사지도교수의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학사지도교수로서의 자질, 그리고 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수행방법으로써 보살행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학사지도교수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사지도교수는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성인 입문기의 발달적 과업을 완수하는 일을 돕기 위해 도입된 학사지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특성들도 달라지고 대학동안 성취해야 할 과업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학사지도교수는 시대와 상황에 맞춰 대학신입생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들을 이해하고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조건들을 인식하고 준비하도록 이끌고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사지도교수가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사지도를 담당하는 교수는 대학 신입생들이 하나의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원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단순히 교육자 이상의 자질을 요구된다. 즉, 학생들의 학교적응과 성장을 위한 지식전달과 태도의 정립 등을 위한 자질도 필요하지만 성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대학 신입생의 발달과업의 수행과정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성적 자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사지도교수의 자기도야의 방편으로 보살행을 살펴보았다. 불교의 보살행은 보살이 되기 위한 수행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어 자기성장과 자기계발을 위해 중요한 실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살행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자신을 구제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이타행이 바로 바라밀행(波羅密行)이다. 보시바라밀 수행을 통해 언제든 무슨 일이든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지계바라밀 수행을 통해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악업을 짓지 않겠다는 원을 세워 행동과 말과 마음을 청정하게 지켜 학생들의 적응과 성장을 안내해야 한다. 인욕바라밀 수행을 통해 신입생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걱정하고 아파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 정진바라밀 수

행으로 학사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기르는 일에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 선정바라밀 수행은 흔들림 없는 평정심으로 자신과 세상, 학생들의 진면목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반야바라밀 수행은 세상의 본 모습을 바로 알아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교수자가 다 그렇겠지만 학사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을 맞이하는 매 순간이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그동안 굳건히 하나하나 쌓고 있던 틀을 또 다시 허무는 과정이었다. 보살사상을 통해 학사지도교수로서 가져야 할 태도나 자질들에 대해 서원을 세우고 보살행을 따라 그 서원을 이룬다면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발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신입생을 대상 학사지도교수의 역할과 자질, 그리고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한 수행방법으로의 보살사상과 보살행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학사지도교수는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성인 입문기의 발달적 과업을 완수하는 일을 돕기 위해 도입된 학사지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질들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공감과 수용><진실성><지식과 역량><내외적통제력><자기혁신>등이었다. 이런 자질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현세에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불보살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불교의 보살행인 바라밀행은 학사지도교수의 자기성장과 인격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수행 방법이었다.

주요어

신입생학사지도교수, 자질, 보살사상, 보살행

References

- 구영미(지윤), 「화엄경의 십바라밀을 통한 상담자의 자기도야」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김은경, 「학사지도교수제 도입의 성과와 과제」 『교육학연구』 제43권 제3호, (한국교육학회, 2005)
- 김지용·강성배, 「학사지도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교양교육연구』 제9권 제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5)
- 김진, 「보살사상과 자비의 윤리」, 『철학논총』 제 48집, 제 2권, (새한철학회 논문집, 2007)
- 신의향, 「미국대학의 1,2학년을 위한 학사지도」,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양교육학회, 2011)
- 안형관, 전영숙, 「상담자의 태도와 화엄경의 보살사상」,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제 2집, 제 1권, (한국동서정신과학회, 1999)
- 윤종건, 전하찬, 『교사론』 (서울:정민사, 1985)
- 이문희, 하정, 「대가 이동식 선생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상담학 연구』 제12권 제3호, (교양교육학회, 2011)
- 이미련, 곽윤경, 「간호대학 신입생의 발달과업성취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 7집, 제 1권,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연구회, 2017)
- 이재수·박경준, 「불교적 인간관에 따른 인간유형의 연구」 『선문화연구』, 제22권, (서울: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7)

- 정귀연, 김세곤, 「양극화시대 불교종립대학의 신입생 불교교육의 역할과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제53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7)
- 정승석, 『100문 100답』 (서울:재단법인 대원정사, 1995)
- 조기룡, 『불교리더십과 사찰운영』 (파주:한국학술정보, 2007)
- 조수동, 「보살정신과 자유의 실천」, 『철학논총』 제72집, (새한철학회, 2013)
- 한민경, 이순복, 「성인학습자로서 유아교사의 자기조절 학습에 대한 고찰 및 교사교육을 위한 시사점 모색」 『생태유아교육』 제10권 제11호,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1)
- 홍송이, 「대학신입생의 첫 학기 전환 과정 연구:근거이론적 접근」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것?99학번‘인간관계’ 19학번 ‘학점’>, 《연합뉴스》, 2019년 12월 16일.
- <대학 10곳 중 8곳, 정시 경쟁률 전년보다 하락, 신입생 미달 본격화>, 《중앙일보》, 2020년 1월 20일.
- Adeel Khali1, Jessica Williamson, “Role of Academic Advisors in the Success of Engineering Students”, Univers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1), 2014.
- David Brazier, Zen Therapy, 김용환 외 역, 『선치료』 (서울: 학지사, 2007).
- Maslow A. H.,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New York: Harper & Row, 1970)
- Jung C. G., Memories, dreams. reflections (New York: Vintage Books, 1970)
- Suzuki, S. Zen Mind Beginners Mind (New York ; Weatherhill, 1970).

Footnotes

- 1) 한민경, 이순복, 「성인학습자로서 유아교사의 자기조절 학습에 대한 고찰 및 교사교육을 위한 시사점 모색」 『생태유아교육』 제10권 제11호,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1), 75쪽.
- 2) 이문희, 하정, 「대가 이동식 선생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상담학 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상담학회, 2011), 836쪽. 재인용
- 3) Maslow A. H.,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New York: Harper & Row, 1970), p153.
- 4) Jung C. G., Memories, dreams. reflections.(New York: Vintage Books, 1970), p.189.
- 5) 이문희, 하정, 앞의 글, 836쪽
- 6) 이미련, 곽윤경, 「간호대학 신입생의 발달과업성취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 7집, 제 1권,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연구회, 2017), 898쪽.
- 7)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것?99학번‘인간관계’ 19학번 ‘학점’>, 《연합뉴스》, 2019년 12월 16일.
- 8) 정귀연, 김세곤, 「양극화시대 불교종립대학의 신입생 불교교육의 역할과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제53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7), 44쪽
- 9) 신의항, 「미국대학의 1, 2학년을 위한 학사지도」, 『교양교육연구』 제5월 제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1), 70쪽.
- 10) 위의 글, 74쪽
- 11) 김은경, 「학사지도교수제 도입의 성과와 과제」 『교육학연구』 제43권 제3호, (한국교육학회, 2005), 5쪽.
- 12) 김지용·강성배, 「학사지도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교양교육연구』 제9권 제2호, (교양교육학회, 2015), 11쪽.
- 13) <대학 10곳 중 8곳, 정시 경쟁률 전년보다 하락, 신입생 미달 본격화>, 《중앙일보》, 2020년 1월 20일.

- 14) Adeel Khali1, Jessica Williamson, "Role of Academic Advisors in the Success of Engineering Students", Univers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1), 2014, pp.73-79.
- 15) Adeel Khali1, Jessica Williamson, 앞의 글.
- 16) 홍송이, 「대학신입생의 첫 학기 전환 과정 연구:근거이론적 접근」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26쪽~27쪽
- 17) 홍송이, 앞의 글, 27쪽.
- 18) 구영미(지윤), 「화엄경의 십바라밀을 통한 상담자의 자기도야」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8쪽
- 19) 김진, 「보살사상과 자비의 윤리」, 『철학논총』 제 48집, 제 2권, (새한철학회 논문집, 2007), 6쪽.
- 20) 안형관, 전영숙, 「상담자의 태도와 화엄경의 보살사상」,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제 2집, 제 1권, (한국동서정신과학회, 1999), 4쪽.
- 21) 조수동, 「보살정신과 자유의 실천」, 『철학논총』 제72집, (새한철학회, 2013), 153쪽.
- 22) Suzuki, S. Zen Mind Beginners Mind (New York:Weatherhill, 1970), p.54.
- 23) David Brazier, Zen Therapy, 김용환 외 역, 『선치료』 (서울: 학지사, 2007), 307쪽~308쪽
- 24) 위의 책, 310쪽.
- 25) 이재수·박경준, 「불교적 인간관에 따른 인간유형의 연구」 『선문화연구』, 제22권, (서울: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7), 296쪽.
- 26) 같은 글.
- 27) 조기룡, 「보살사상과 서번트 리더십에 기반한 사회복지사 리더십의 도출」 『불교연구』, 제29권, (서울:한국불교연구원, 2008), 365쪽
- 28) 김진, 앞의 글, 13쪽.
- 29) 조기룡, 『불교리더십과 사찰운영』 (파주:한국학술정보, 2007), 52쪽.
- 30) 구영미(지윤), 앞의 글, 15쪽.
- 31) 정승석, 『100문 100답』 (서울:재단법인 대원정사, 1995), 311쪽.
- 32) 구영미(지윤), 앞의 글, 16쪽.
- 33) 같은 글.
- 34) 위의 글, 17쪽~18쪽.
- 35) 윤종건, 전하찬, 『교사론』 (서울:정민사, 1985), 15쪽.
- 36) 구영미(지윤) 앞의 글, 18쪽~19쪽.
- 37) 위의 글, 19쪽~20쪽.